

---

# 진흥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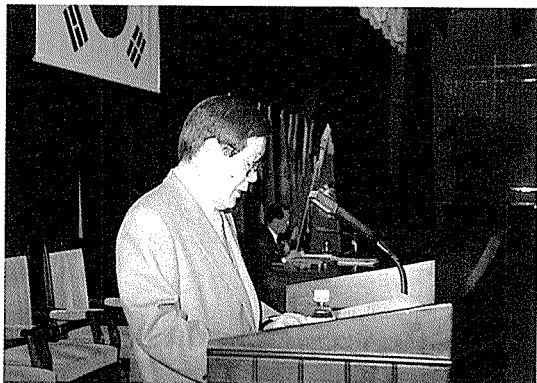
---

##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

— “범 전자업계 품질 일류화의 해” 선포 —





본회는 지난 2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회원사 320여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본회는 전자산업 9.7% 성장실현 및 품목구조 고도화에 주력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97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진흥회는 금년도 전자산업의 해외수요는 세계 전자시장의 신장세 등으로 작년보다 결코 나쁘지 않으나 경쟁력약화와 전반적인 국내경기의 침체로 정보통신부문을 제외하고는 올해도 국내전자산업의 전망이 크게 밝지는 않다고 보고 성장목표를 전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낮춰 설정하는 한편 경쟁력강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 기술집약제품 위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진흥회는 이를 위해 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수요창출 및 경쟁력강화 2) 업계간 협력증진을 통한 비용절감 및 성과 극대화 3)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4) 전자종합정보망(EIAK-INS)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충실화 5) 실리위주의 국제협력 등 5대 중점사업을 선정하는 한편 올해를 '범전자업계 품질일류화의 해'로 선포하고 품질경영 분위기를 업계전반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흥회는 이와함께 업무정비 및 조직활성화를 과감하게 추진하여 예산을 10% 절감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내부 경영합리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96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수지결산과 임원선임에 관한 정관중 일부 개정(안)과 감사선임 등이 의안으로 진행되었으며 97년도 「전자산업대상」수상과 전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실천 결의 대회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

### 전자제품의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조정 건의

---

우리 전자산업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업계의 많은 노력으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고 세계시장에서도 일본 등 선진 경쟁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생산액면에서 세계 4위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자산업의 여건은 대외적으로는 선진 각국들의 수입규제, 기술이전 기피, 엔저의 지속과 후발개도국들의 저가공세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공장입지, 임금, 금리, 물류비용 등 생산요소들의 원가부담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의 침체, 유통시장 개발에 따른 수입급증, 수입선 다변화 품목의 해체등으로 국내외적 경쟁력 제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이에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전자제품의 부품보유기간과 무상수리기간이 전자업계의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줄것을 관계기관(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에 건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보유년한은 A/S적인 측면이 강한만큼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할것과 또는 전자업계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이를 현실화시켜 무상수리기간(1년), 부품보유년한(2~4년)으로 단축시켜 줄것을 건의하였다.

런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EC의 반덤핑 제소와 관련하여 후발 경쟁국인 홍콩, 중국도 반덤핑 관세를 20%~30% 부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역내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동향 파악 및 타산업의 확대방지에 노력이 필요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시 상대적인 피해는 작지만 브랜드이미지 실추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소철회 및 조사동결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그리고 고합의 반덤핑 제소건에 대해 자기미디어 업계의 중지를 모아 자기미디어협회 대표주자 및 진흥회측과 바스프의 책임자간에 반덤핑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며 또한 미국, EU지역에 수출시 L/C오픈을 꺼리는 관계로 인해 되도록 수출보험공사를 통한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하고 그의 심사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시기 단축을 요망하였다.

### 자기미디어 협의회 임원 조찬 간담회

본회 부품산업부에서는 지난 2월 12일 팔레스호텔에서 최근의 자기테이프 수출동향, EC집행위원회 반덤핑제소관련 협의를 위해 SKC, SKM, 코오롱, 효성생활산업, 새한미디어, LG전자, 고합물산 등 관

#### 참 고

〈자기테이프 생산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

	95	96추정	97전망
비 디 오 용	6,639	7,970(20.0)	8,282(4.0)
오 디 오 용	2,223	2,490(12.0)	1,923(△22.8)
계	8,862	10,460(18.0)	10,205(△2.4)

\*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

〈종류별 수출입동향〉

(단위 : 천불, %)

	수 출		수 입	
	95	96추정	95	96추정
비 디 오 용	730,428	831,000 (13.8)	37,692	33,500(△11.1)
오 디 오 용	240,349	234,000(△2.6)	29,490	22,500(△23.7)
계	970,777	1,065,000 (9.7)	67,182	56,000(△16.6)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임.

## 마그네트론 기준표준화 회의개최

본회 형명등록과에서는 지난 2월21일 본회 10층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등 관련업체가 모인 가운데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등 3개규격서 표준화작업, 각사별 특히 클레임 현황발표 및 대책논의, 고압세라믹 콘데서에 대한 각사별 시험데이터 결과발표 IEC등 국제기술규격작업 참여방법설명이 있었다.

### ○ 표준화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참고규격
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명등록에 관련된 내용삭제(형명등록서 사양, 형명 등)</li> <li>- 등록추진시 별도 제정</li> <li>○ 용어통일</li> <li>- 능률→효율, 단철→요크</li> <li>- 라지에타→냉각핀</li> <li>- 엔드 핫드→엔드 실드</li> <li>- 선륜→코일, 브로워→송풍기</li> </ul>	○ EIAJ EDR-1501(전자렌지용 마그네트론 사용법)
마그네트론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파관의 마그네트론 등 6개 항목에 대한 위험요소를 본문에 삽입</li> <li>○ X선 방사, 레이저광, 방사성 동위원소, 베닐롭자기 내용삭제</li> <li>○ 표시부분 : 라벨표기상 “고압위험” 혹은 “고압주의” 표시</li> </ul>	○ EIAJ EDR-1101(전자관 취급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마그네트론 검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측용 수신관 검사, 고신뢰 검사 등 삭제</li> <li>○ 시험항목 기호 합의</li> <li>- 형식시험 : 별표 2개</li> <li>- 생산시험 : 무</li> <li>- 설계시험 : 별표 1개</li> <li>- 특수설계시험 : #</li> <li>○ 발취방법</li> <li>- 외관 : G11→0.65%</li> <li>- 외형치수 : G11→0.65%</li> <li>- 생산시험 : G1→ 0.4%</li> <li>○ 외관검사기준</li> <li>- 외과, 표시, 외형치수 삽입</li> </ul>	○ EIAJ ED-1101(전자관 검사 규정)

## 가전제품 부품 공용화 실무총괄 회의 개최

본회 가전과에는 지난 2월 24일 팔레스호텔에서 가전제품의 부품표준화 및 공용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부품·퍼시픽 콘트롤즈·LG전자부품·대우전자·통상산업부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회의내용으로는 '96년 추진실적 및 97년 추진계획 협의(품목별 추진 애로사항), 부품표준화 공용화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추진 목표로는 5개품목의 18개 부품으로 C-TV(FBT등 3개 품목), 냉장고(파워릴레이 등 3개 부품), 세탁기(탈수타이머 등 6개 부품), 전자렌지(HVC 등 3개부품) 청소기(전원플로그 등 3개 부품)으로 C-TV의 FBT등 9개 품목은 규격완료되었으며 전자렌지의 마이크로 스위치 등 9개 품목 등이 규격제정 중에 있다.

추진성과로는 수입대체효과 1,000만불, 원가절감 효과 120억원 등 생산성 향상(5%), 조달기간의 단축,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97년에는 CTV의 R/C 수광모듈 등 17개부품이 98년에는 냉장고의 파워코드 등 16개 부품이 추진될 계획이다.

## 국산 방송기기 업계, 2차 민방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개최

한국전자산업진흥회내 방송기기업계 -분과 위원장 장기선(張琪先) -는 국산방송기기의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키로 결의하고, 지난해 말에 선정된 5개의 민영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6일(수) 오후 4시부터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에서 국산방송기자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방송용 카메라와 녹화기 등의 분야에서 삼성전자
- 오디오 믹싱 유니트 등 A/V 분야에서 동서전자, 고려전자엔지니어링 등
- 방송그래픽 문자발생기 등의 분야에서 보은전자 통신, 컴픽스 등
- 방송중계차 분야에서 금양기전 등 10개사의 국산 방송용기기 업체들이 제품 설명을 하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 개국 예정인 민방 5개사는 장비 선정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은 모두 방송사업 허가 계획서에는 국산기기 구매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초 허가 계획서대로 국산기기를 그대로 구매해 줄것을 국산기기 업체는 요구하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산방송기기 업체는 지난 1월 전자산업진흥회를 중심으로 방송사업자 및 케이블TV사업자가 최초 사업허가 계획서상의 국산기기 구매비율을 사업자 선정 후에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줄 것을 공보처 등 관계 부처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금) 관계부처와 업계 대표간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기로 하고 2. 26(수) 개최되는 국산방송기자재 설명회를 우선 최대한 지원키로 하였으며, 방송사업자 및 케이블 TV사업자가 사업허가 시 가산점을 높이기 위해 국산기기 구매 비율을 높게 책정해 놓고 나중에 이를 지키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제도상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적극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방송사업자 및 케이블 TV사업자들은 지난 1차 사업자 선정시에도, 사업계획서상에는 국산방송기기를 60~80% 이상 구매계획을 세워 놓고 선정후에는 이를 거의 지키지 않아 국산기기업체의 개발의욕을 크게 저하시켰을 뿐아니라 방송기기 수입급증의 주요인이된 바 있어, 정부의 제도를 무시하고 방송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 진흥회 2월 주요행사 및 회의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일 자	행사 및 회의명	담당부서
2. 3	자기미디어 산업협의회 임원 회의	부 품 과	2. 20	전기다리미 산업피해구제 대책회의	국 제 부
2. 3	CDMA 관련 업계회의	산업전자과	2. 20	제97차 이사회 개최	총 무 과
2. 3	WCO 통일 원산지 규정협의 업계 대책 회의	국 제 부	2. 21	FBT 표준화 회의	부 품 과
2. 4	브라운관 업계 해외영업담당 임원 간단회	형명등록과	2. 21	이동통신기기 및 부품개발 촉진사업	산업전자과
2. 4	C-TV 주요 품목별 수출 대책회의	국 제 부	2. 21	중기거점과제 발굴회의	국 제 부
2. 5	VCR 주요 품목별 수출 대책 회의	국 제 부	2. 21	마그네트론 기술관련 회의	형명등록과
2. 6	무역수지 대책반 회의	국 제 부	2. 21	이동통신기기 핵심부품 개발 촉진회의	산업전자과
2. 11	C-TV 수출 점검회의	국 제 부	2. 21	국산 CATV/방송기기 보급 확대 관계부처와의 간단회	산업전자과
2. 12	WCO 통일 원산지 규정협의 EIAJ와 협의	국 제 부	2. 21	MWO 표준화·공용화 회의	가 전 과
2. 12	자기미디어 산업협의회 조찬 회	부 품 과	2. 21	리사이클센타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	환 경 과
2. 12	V-TAPE 수출 점검회의	국 제 부	2. 24	가전제품 부품공용화 관련 조찬회	가 전 과
2. 13	VCR 수출 점검회의	국 제 부	2. 25	제21회 정기총회 개최	총 무 과
2. 13	IEC TC-39 WG2 대응전략 수립 회의	형명등록과	2. 25	소형 가전업계 회의	가 전 과
2. 14	EIAK/EIAJ 원산지규정 회의	국 제 부	2. 26	국산 방송기자재 보급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산업전자과
2. 18	MWO 수출점검회의	국 제 부	2. 27	가전제품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협의	가 전 과
2. 18	CPT업계 임원회의	형명등록과			

## 회원사 변경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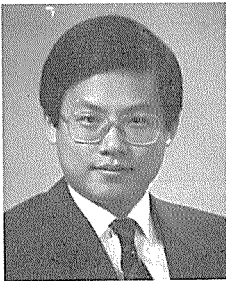
- ▶ 삼성공업(주) 사옥이전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 1023번지
  - 056)583-5651/5
- ▶ 대원정보시스템(주) 사옥이전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34 백암빌딩 구관 205호, 206호
  - TEL : 02)3453-4545 FAX : 02)501-9153
- ▶ (주)우주정밀 사옥이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02-4(녹시빌딩)
  - TEL : 0342)702-5900 FAX : 0342)708-8455
- ▶ 두일전자통신(주) 상호변경
  - 변경전 두일산업(주)
  - 변경후 두일전자통신(주)
- ▶ (주)콤텍시스템 사옥이전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779-10
  - TEL : 02)3289-0043 FAX : 02)836-6611

## 회원사 창립일을 축하합니다

회 사 명	창립연월일	회 사 명	창립연월일
삼 성 물 산 (주)	1938. 3. 1	(주) 세 지 니 어 링	1979. 3.23
정 풍 물 산 (주)	1965. 3.15	(주) 정 엔 지 니 어 링	1979. 3.31
모 토 로 라 코 리 아 (주)	1967. 3. 7	한 국 통 신 (주)	1980. 3. 1
(주) 대 우	1967. 3.22	경 기 전 자 공 업 (주)	1981. 3.18
아 남 산 업 (주)	1968. 3.26	삼 아 전 공 (주)	1982. 3.10
(주) 성 요 사	1969. 3.26	동 방 음 향 (주)	1983. 3.24
대 진 정 밀 산 업 (주)	1970. 3.10	보 문 전 자 (주)	1984. 3.15
(주) 명 성 제 작 소	1970. 3.13	시 무 코 퍼 레 이 손	1984. 3.18
신 호 전 자 부 품 (주)	1970. 3.23	(주) 한 짜 운 드	1984. 3.20
국 제 전 자 공 업 (주)	1971. 3. 1	창 성 기 업	1985. 3. 1
한 국 유 니 시 스 (주)	1971. 3.18	진 아 기 전 (주)	1988. 3.15
대 성 전 기 (주)	1973. 3. 2	택 산 전 자 (주)	1990. 3. 9
대 극 동 음 향 (주)	1977. 3. 3	(주) 삼 른	1990. 3.15
(주) 유 유	1977. 3.31	(주) 팬 택	1991. 3.29
케 이 앤 제 이 전 자 (주)	1978. 3.11	(주) 데 이 터 커 벡 션	1992. 3.12
해 태 전 자 (주)	1978. 3.25	(주) 진 성 전 자	1992. 3.30
두 일 산 업 (주)	1979. 3.12		

##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 (주) 서통



대표이사: 최좌진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32  
 전 화 번 호: 02)639-2500  
 F A X: 02)672-4437  
 설 립 일 자: 1954. 1.26  
 자 본 금: 424억원  
 종 업 원 수: 1,000명  
 주 생 산 품 목: 건전지

### IDM 무선정보통신(주)



대표이사: 강병천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태석B/D  
 전 화 번 호: 02)589-1991  
 F A X: 02)589-1995  
 설 립 일 자: 1997.11.4  
 자 본 금: 16억원  
 종 업 원 수: 23명  
 주 생 산 품 목: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생산 예정,  
 LMCS관련장비 생산예정